

1980년대 북한의 고립화 심화와 최근 동구 공산정권의 급속한 해체는 분명히 김일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협의하기 위해 30명의 대사를 평양으로 불러들였고, 알려진바로는 동구 및 소련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1천7백명의 학생들을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귀환을 명령했다.

북한: 변화 아니면 고립화속의 퇴보(?)

그러나 어떤 관측통들은 비록 김일성일지라도 한국과의 타협이 필요함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이 완화되는 조짐을 알아내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북한의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저명한 학자와 언론인, 종교인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관리들은 이들 방문객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적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사적인 위협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과 1990년 북경 아시아안계임에의 단일팀 구성에서부터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협의를 추진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업적도 인정하였고, 국내의 경제를 개혁하고 서구와 경제적인 관계를 수립하려는 희망을 중시하고 있었다.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은 대외교역의 증대, 소비재 생산증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등의 강조로 개혁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세분야는 전부 아무런 성공을 못이루고 있다.

북한이 종종 사후처리를 못하고 있는 45억 불로 추산되는 외채와 硬貨의 부족은 주요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고도기술 습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외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도 소규모의 합작사업 몇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1989-1990 세계전략 개요
- 북한篇 -**



● 金正煥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부

세계청년축제를 보도하려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다주파 무전기를 보유할수 없었으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는 정부 방송만 수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워싱턴에 위치한 Asia Watch의 주장으로, 북한에는 인구의 0.7%인 15만2천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 및 경제관계는—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관광지로 공동개발하는 것은—한국측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자금을 댈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와의 사업을 희망하는 북한측에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

폭넓은 외교적 배경면에서 김일성은 적어도 동구의 극적인 변화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1990년 2월에 페레스트로이카 사상을 호평한 것은 루마니아 국가해방전선(NSF)을 북한이 인정한 것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Václav Havel 앞으로 김일성이 축하편지를 보낸 것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불간섭을 선언한 북한의 정책과, 정책의 일부로 동구의 새로운 비공산정부 지도자들에게 북한이 인사를 전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희미한 변화 조짐들과 상반되는 더 많은 행동들이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통적으로 행해온 자세나 태도와 일치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은 한국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같은 요구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협상의 실패는 한국측의 고집 탓으로 돌리고, 이런 견해를 가장 신랄한 용어를 구사하여 국제적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김일성 정부는 한국의 반정부 지도자들과나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선동한 후 그곳에서 한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역량이나 다른 업적을 북한이 인정할 때도 뒤따르는 것은 한국이 압제와 빈곤의 땅으로 그 속에서 대중들과 연합야당이 「美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파시스트 도당」을 물리치기 위해 투쟁하는 식으로 묘사하면서 국내외로 선전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준비태세도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군사력 평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IA는 북한의 총 병력이 93만의 지상군과 함께 1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UN에 보낸 부분적인 센서스 자료에서는 더 많은 숫자—총병력이 1백20만이 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지상군의 60% 정도를 비무장지대(DMZ) 가까이 배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병력이 서울 바로 북쪽에 집중해 있다.

이들 북한군은 별도의 재보급 없이도 4개월 정도의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수품을 전방에 배치해놓고 있다.

또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능력을 구비중이라는 보고가 있다. 북한은 안전대책이 없는 핵발전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에 서명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에 완전한 안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야심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1989년 9월 와이오밍에서 있는 베이커—세바르드나제 회담에서도 토의주제의 하나였다.

이러한 개발은 북한이 이미 소련으로부터 SA-5 미사일 및 Su-25, MiG-29 항공기등을 구입, 첨단화한 기존의 가공할 무기외에도 소련의 Scud-B 탄도미사일을 역설계하여 독자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는 보고와 결부되어 한국에게는 더 큰 놀라움을 가져다주었다.

1990년 3월 3일에는 북한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뚫은 제4땅굴이 비무장지대의 동부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꽤 오래전에 판 것이 확실하였지만, 그 땅굴은 개방된 상태였고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측은 이 땅굴이 「목과할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표현하면서 북한군이 「속전속결전」으로 무장되고 있는 증거로 보고 있다.

북한이 다른 곳에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자국의 통치방식을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은둔국가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동구권 정부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국과 접촉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비방하고 있다.

동독과 헝가리 등에서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1989년 10월,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부르조아 사상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김일성은 11월 소련, 동독, 불가리아에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사회-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요청하였다. 북한은 1989년 6월 중국의 시위진압을 지지한 몇 안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의 국내정치를 보아도 통치방식의 완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청년축제를 보도하려는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다주파 무전기를 보유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라디오는 정부 방송만 수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다른 보도에서는 몇몇 원로 정치인들(前 부주석 홍승영 및 前 당서기 유창식을 포함)이 김일성의 권력계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전해졌다.

최근에는 정부의 개방증대를 요구하는 이유로 노동당의 원로들을 강등하고 숙청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워싱턴에 위치한 Asia Watch의 주장으로 북한에는 인구의 0.7%인 15만2천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의 딜레마

1972년 김일성은 당에서 정부로 권력을 옮기면서 그는 국가주석이 되고, 그의 아들이 노동당을 지배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김정일은 주요 정책안을 입안하거나 시행함으로써 북한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소비재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 진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떤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경제적인 생산을 진흥하는데는 이데올로기적인 호소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였다는 표시이며, 그가 물질적 자극이라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성산이나 이종옥같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점점 더 많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유연성이 증대되었다는 약간의 표시들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나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무리 적응하고자 하더라도 「新思考」를 계속 짓누르는 것은 당이나 국가관료체제가 아닌 김일성숭배라는 부담이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김일성의 주요 지배수단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관료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북한의 체제는 바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군사력과 자국의 공산주의에 관한 거의 광적인 집착은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 소모품에 불과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세력 판도에는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

북한이 처해있는 궁극적인 딜레마는 자신의 강경 국내정치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영향에서 철저히 고립되어야 하나, 피폐된 경제와 사회를 개조하려면 이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은 별일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78세의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후 터져나올 장기간의 후속사건들은 훨씬 큰 상처를 줄 것이다. *

〈IISS Strategic Survey 1989~1990〉